

울진군의회, 5천823억원 예산 의결

제229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원전재개 촉구 등 조례 의결

울진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30일간) 2018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조례안 등 10건이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의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3천735억원, 특별회계 1천850억원, 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8억원으로 총 5천823억원을 의결하고,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대해 14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울진/장부중 기자
bu-joung@hanmail.net

경상투데이

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내년 예산안 등 조례안 10건 의결

울진군의회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달 20일부터 30일간 2018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 결의문, 조례안 10건이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의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3735억원, 특별회계 1850억원, 201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8억원으로 총 5823억원을 의결하고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대해 14억40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다.

장시원 의장은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군민의 행복에 두고 군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노환기자



울진군 내년도 예산 '5823억' 확정

군의회, 제2차 정례회서 의결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추경예산·조례안 10건 등 처리

울진군의회(장시원 의장)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30일간) 2018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내년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한울 3,4호기 약속원전 건설재개 촉구결의문, 조례안 10건이 의결됐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유성

위원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집행부의 내년 본예산 일반회계 3,735억원, 특별회계 1,850억원, 내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38억원으로 총 5,823억원을 의결하고, 금강송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사업등 총 8건에 대하여 14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장시원 의장은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군민의 행복에 두고 군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호환기자